

2018년부터 국·영·수 학습 부담 줄어든다

정부, 개정 교육과정 확정 발표... 고교 문·이과 통합

초·중·고 수학 난이도 조정... 독서·연극·안전 교육 강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이 신설된다. 학생들의 국·영·수 학습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 학기 1권의 책을 수업시간에 읽는 독서활동이 이뤄지고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공교육 정상화 및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초등 1~2학년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2017년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학습 부담 줄이고...참여수업 활성화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를 비롯한 교과별 성취기준을 현재보다 20% 가까이 줄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성취기준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이동하거나 삭제하고 비슷한 학습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지금보다 14~18% 학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공통 과목까지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학습 내용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했다.

정비례·반비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던 아르(a)·헥타르(ha) 등은 빠지고 현행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곱셈공식은 중학교 3학년의 인수분해로 통합된다. 또 '초등학교에서 무게 단위 사이 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1g과 1사이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집합 개념이나 집합 포함 관계는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평가한다'는 식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신설, 교육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 학습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영어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바뀐다. 초·중학교에서 '듣기'와 '말하기'에, 고등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학습할 어휘 수는 3000개를 유지하면서도 어휘 목록과 언어 형식을 학교급별로 구분, 제시해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게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연극교육 강화=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 중심의 '안전생활' 교과를 편성하도록 했다. 3~6학년은 체육, 실과 등의 교과에 '안전' 단원이 신설된다.

1~2학년이 받는 한글교육을 현행 27시간에서 45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시행할 자유학기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학교 '정보'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수업은 1년간 매주 1

시간씩 이뤄진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에서는 연극 대단원이 신설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을 신설되는 등 연극 교육이 활성화된다.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136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교 공통과목 신설=교육과정 개정으로 고등학생이 문·이과 구분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는 등 고등학교 수업 변화가 예상된다.

고등학생이 필수로 듣는 공통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등 7개가 신설된다.

통합사회는 기존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통합과학은 현재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의 과목을 핵심개념 위주로 통합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1학년 때 필수과목을 배우고 2, 3학년에 올라가 선택과목으로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 등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교육부도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1 해질 18:29
 일출 14:51 일몰 08:38

가을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우량 10~5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18/24	보성	비	15/22
목포	비	18/22	순천	비	18/24
여수	비	20/22	영광	비	17/24
나주	비	17/24	진도	비	18/22
완도	비	19/22	전주	비	18/24
구례	비	15/24	군산	비	18/23
강진	비	17/22	남원	비	15/23
해남	비	18/23	축산도	비	19/22
장성	비	16/2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부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2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46	02:19	21:51	14:25
여수	04:11	10:09	17:31	23:52

주간 날씨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	☁	☁	☁	☁	☁	☁
19/28	18/24	17/26	16/26	15/25	15/25	15/25



“농특산물 저렴하게 사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2일 광주시 동구 KT광주정보센터와 광장에서 ‘한가위 전남대표 농축산물 특판전’을 열었다. 행사는 24일까지 계속되며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협 감사가 원산지 속여 배 330상자 판매

순천경찰 불구속 입건

순천경찰서는 씌값에 배를 사들여 자신이 수확한 배와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감사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15kg짜리 ‘별고배’를 1박스당 3만 2000원에 모두 146박스를 구입한 뒤 농산

물수관리인증서(GAP)가 부착된 ‘순천배’ 이름이 새겨진 박스에 자신이 생산한 배와 반반씩 섞어 1박스당 4만5000원씩 총 330박스(1485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배에 ‘흑성명’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다 는 이유로 발교산 배를 섞어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 순천 모 농협의 감사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7년 3월까지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집회 소음 줄입시다”

광주 남부경찰, 소음 크기 안내 ‘LED 알리미’ 운영

광주 남부경찰은 집회 현장에 ‘집회 소음 알리미’를 도입,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집회소음 알리미는 경찰 차량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기준과 실제 소음 크기를 집회 당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집회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기준 소음은 60데시벨입니다”, “현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형사처벌합니다” 등의 내

용을 글자로 보낼 수 있고, 최대 10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문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오히려 양측간 고성인 오가는 등 소란스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에서는 남부경찰서, 전남에서는 순천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리미 도입 이후 집회 현장에서 불법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이천~김포공항

광선고속 하루 2회 운행

광선고속은 오는 24일부터 광주~이천~김포공항 노선을 하루 2회 운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광천동)에서 오전 10시10분, 오후 3시10분 출발해

경기도 이천(오후 1시45분, 오후 6시45분)을 경유, 김포공항으로 향한다. 김포공항에서는 오전 8시30분, 오후 5시20분에 출발해 이천(오전 10시10분, 오후 7시)을 거쳐 광주에 도착한다.

소요시간 및 운행요금은 광주~이천 구간 3시간30분(1만7900원), 광주~김포공항 구간 5시간(2만3700원)이다. 문의는 광선고속 062-574-3103.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

상담문의

(062)371-1800

직원모집

- 골프 유경험자 우대
- 나이 상별 제한없음
- 골프장 선불회원권 컨설팅
- 근무지: 광주/순천